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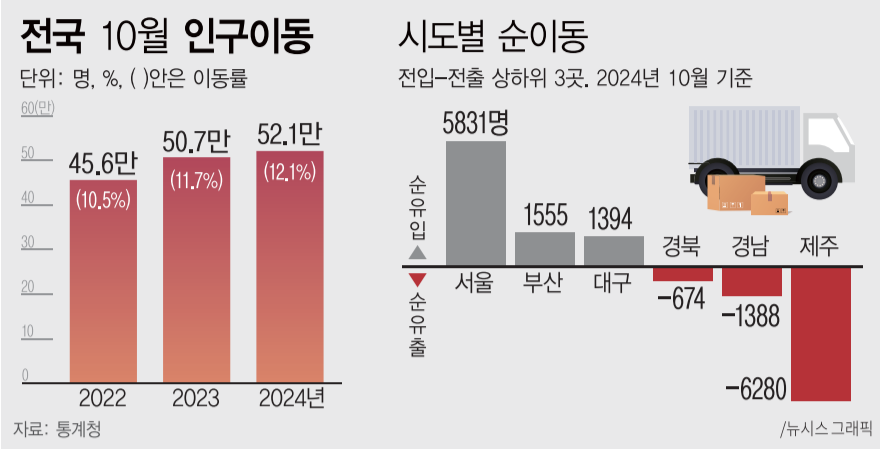
# 주택매매 늘자 지난달 51.1만명 이동... 3년 만에 최대규모

통계청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 통계' 이동자수, 전년비 2.8% 늘어 세종, 충남, 인천 순이동률 높아 인구동향, 3분기 합계출산율 0.76명

올해 하반기에 주택매매가 늘면서 지난달 인구이동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종은 기존 인구 대비 타 지역에서 유입된 비중이 가장 컸고, 빠져나간 비중 1위는 서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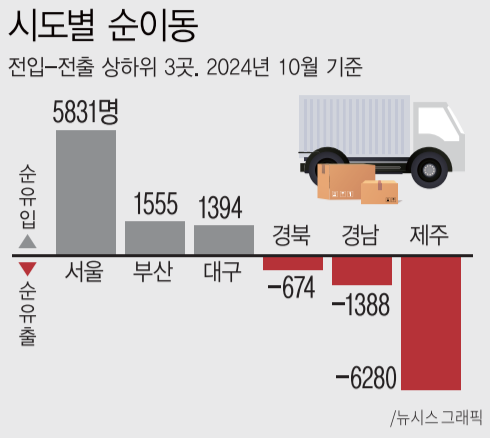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10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수는 51만1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8% 늘어났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이다.

8~10월 입주 예정 아파트는 8만700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2.5%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7~9월 주택매매건수가 20.8% 증가한 18만 건에 달한 영향



으로 전체 이동자 수가 늘어난 것이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8.5%, 시도 간 이동자는 31.5%를 기록했다. 전년동월과 비교해 시도 내 이동자는 3.5% 증가, 시도 간 이동자는 1.4% 증가했다.

시도별 순이동률은 세종이 +1.2% (순유입)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충남



(+0.8%), 인천(+0.6%) 등이 이었다. 반면, 순유출 비율은 서울(-0.8%)이 가장 컸고 부산(-0.5%), 광주(-0.4%)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동 거주민 수별로는, 경기도가 +5831명으로 1위였다. 이어 인천(1555명), 충남(1394명) 등 8곳이 순유입을 기록했다. 서울(-6280명), 부산(-1388명), 경북(-

674명) 등 9개 시도에서는 순유출됐다. 경기와 인천은 인구가 유입되고 서울은 유출되는 흐름이 7개월 연속으로 지속됐다.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 분산은 이미 십수 년째 진행 중이다. 한편, 인구 유출이 이어지던 대구, 경남, 전북 지역 이동률은 소폭 옴세로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구·경남·전북에서 순유입으로 이번 한 달 증가로 돌아섰다"며 "전북은 익산에서 아파트 입주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대구·경남은 전출자 수가 전입자 수보다 더 크게 감소해서 아주 소폭이지만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2024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05명 늘었다.

같은 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2014년

0.03명 늘어난 이후 10년 만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증가로 전환하게 된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 감소 전환해 지난해까지 8년째 역대 최소를 갈아치운 바 있다. 2018년에는 0.98명으로 1.0 선이 무너졌고 2022년에는 0.78명까지 쪼그라든 바 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올해는 혼인의 영향을 받아 출생아 수가 증가할 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전년 대비 8.0%(4523명) 증가하면서 2007년 15.6% 늘어난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출생아 수는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3분기 혼인 건수도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대로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한전 “전기요금 급등, AI로 예측 안내”

내달부터 취약계층 대상 시범서비스 100% 한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 알고리즘·피드백 통해 전국 확대 계획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전기요금 급등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안내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혹한기(겨울철) 난방사용과 혹서기(여름철) 냉방 수요 급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전기요금 증가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27일 이같은 서비스를 개발해 12월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대국민서비스 개선 과제' 공모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로, 한전은 디지털전환실, 전력연구원 및 강원본부 등 사내 조직을 중심으로 애자일(Agile)팀을 구성해 9월부터 100% 한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

특히, 최신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의 전력량계가 보이고 있다.

와 AI 기반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고객 맞춤형 UI/UX 설계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전환을 구현했다.

한전은 12월부터 서울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 주택용을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알림톡 형식의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가구는 10일간 전기사용량으로 한달 사용량을 예측해 당일 전기요금에 과다하게 청구될 것으로 예상시 안내받게 된다.

한전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확보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알고리즘을 보완하고 피드백을 반영해 시스템을 고도화해 향후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고객이 스스로 전력 사용을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도록 돕는 혁신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며 "전력 인프라 고도화와 신기술·신사업 개발을 통해 국민 편의 극대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승용차·K-푸드 등 조지아 관세 즉시 철폐

산업부, '韓-조지아 EPA' 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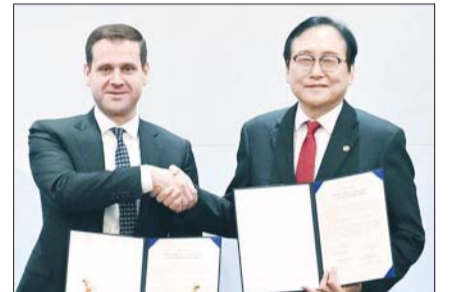
정부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신흥 물류 요충지 조지아와 높은 수준의 자유 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와 K-푸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음반, 출판, 교육서비스가 개방돼 K-컬처 확산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라제(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이 27일 서울에서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차질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이다.

한-조지아 EPA 협상 타결로 상품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한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조지아의 관세가 전면 즉시 철폐된다.

또 K-푸드와 K-뷰티에 대한 관세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게나디 아르벨라제(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과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즉시 철폐, 우리 식품과 화장품 교역의 지평이 코카서스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 가전제품, 기계 등 우리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조지아 측 관세 또한 철폐된다.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뿐만 아니라, 증류주(차차), 천연 탄산수 등에 대해서 우리도 수입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구리 스크랩, 슬랙(slag) 등 국내에서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철폐돼 관련 업계 원료 수급 및 생산안정이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 중소, 송미령 장관에 규제완화 등 지원 요청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농식품 산업 성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단은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농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韓-日, 스마트농업·고령친화식품 교류 박차

농식품부, 농림수산물협력위원회 양국 간 정책·연구동향 공유

한국·일본 양국이 농림수산물 분야 중 스마트농업·고령친화식품 등의 신성장 산업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26일 일본 센다이시에서 개최된 제53차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에서 양국이 농림수산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 측은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간 농림수산물 분야 정책 및 연구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스마트농업 기술협력을 비롯해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고령친화식품 다양화 방안, 수직농장 기반 기능성식품 연구, 축산물 유래 기능성소재 개발 등 신규 공동연구 제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토양건전성 정의와 평가 방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스마트농업 기술·제도 정보 교류를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는 지난 1968년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농림수산물 분야 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정기 협력 채널 마련에 합의한 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돼 왔다. 지난해 부산에서 개최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진청, '3D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건축비용 산출로 효율적 예산 활용 가능

농촌진흥청은 기상 재해에 대응하고 작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3D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GHModeler)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온실을 지을 때 2차원 도면을 활용해 왔는데 농업인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 건축 비용 산출이 쉽지 않은 데다 시공 후 해마다 변화하는 내부 환경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농진청은 2차원 도면의 설계 오류를 줄이고 온실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의 경제적 설계를 도모

하기 위해 비닐온실 전용 구조 설계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에 개발한 GHModeler는 3차원 가상공간에서 온실을 설계할 수 있다. 농업인이 농장의 위치, 온실의 높이, 설치방향 등을 입력하면 실제로 지어지는 온실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온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둥, 지붕, 휨쇠, 외장재 등 온실을 짓는데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종 건축비용을 산출할 수 있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